



[30~31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언어학에서 변별적 자질은 두 대상이 어떤 특성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용한 개념이다. 이것은 본래 음운을 변별하는 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. 변별적 자질은 [+F]나 [-F]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는데, 이때 ‘F’는 음성적 특성을, ‘+/-’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. 예컨대 두 음운 /ㄱ/과 /ㄷ/은 두 입술로([양순성])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공통점이 있으나, 공기가 코를 통과한다는([비음성])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/ㄱ/은 [+양순성, +비음성], /ㄷ/은 [+양순성, -비음성]이라는 변별적 자질들의 묶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.

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A가 C 앞에서 B가 되는 형식 (A → B / \_\_\_ C)의 음운 동화 현상에서 ㉠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, ㉡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, ㉢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각각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. 더 나아가 ㉣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과 적용받은 후의 음, ㉤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도 각각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. 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(들)로 표시할 수 있다.

변별적 자질은 일반적으로 +나 -의 양분적인 값을 가지므로, 말소리가 인간의 기억 속에서 범주적인 양상으로 지각되거나 저장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. 또한 이러한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한 개의 자질을 선택함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정보를 알려 주는 효과, 즉 상호 예측성을 지니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. 이와 같이 변별적 자질을 통해 우리는 음운과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.

30.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?

- ① 음운 간의 대립은 변별적 자질보다는 음성적 특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.
- ②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.
- ③ 하나의 변별적 자질을 알면 해당 음운의 모든 음성적 특성을 알 수 있다.
- ④ 어떤 한 음운은 [+F]이면서 동시에 [-F]인 변별적 자질을 가질 수 있다.
- ⑤ 양분적인 값으로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정보 전달의 효율이 낮아진다.



31. 위 글을 참고할 때, <보기>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—<보 기>—

[-비음성]의 A가 [+비음성]의 C 앞에서 [+비음성]의 B가 되는  
자음 동화 규칙과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.

**【규칙】** A → B / \_\_\_ C

**【실례】** ㄱ → ㅇ / \_\_\_ ㅁ 국물 [궁물]  
          ㄷ → ㄴ / \_\_\_ ㅁ 만며느리 [만며느리]  
          ㅂ → ㅁ / \_\_\_ ㄴ 읍내 [읍내]

- ① ㉠에 해당하는 ‘ㄱ, ㄷ, ㅂ’은 공통적으로 [-비음성]을 갖는군.
- ② ㉡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군.
- ③ ㉢에 해당하는 ‘ㄴ, ㅁ’은 공통적으로 [+비음성]을 갖는군.
- ④ ‘읍내’에서 ㉣에 해당하는 ‘ㅂ’과 ‘ㅁ’은 공통적으로 [+양순성]을 갖는군.
- ⑤ ‘국물’에서 ㉣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지 못하는군.



■ **해설** ■ 편하게 공부하려면 자에게 해설지는 '독(毒)'이다.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만 '약(藥)'이 된다.

비문학, 언어 - 음운의 변별적 자질

- ① **변별적 자질** : 본래 음운 변별시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서 음운 간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. [+F], [-F] → 음성적 특성의 있고 없음. /ㅁ/ [+양순성, +비음성], /ㅂ/ [+양순성, -비음성]
- ②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**부류**를 형성하는 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 가능. (예) (A → B / \_\_\_ C)의 음운 동화 현상에서의 부류-A, B, C, A&B, B&C .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 가능.
- ③ +, -의 **양분적 값** : 말소리가 인간 기억 속에 범주적 양상으로 지각, 저장된다는 사실 설명, 한 개의 자질 선택으로 두 개의 정보를 알려 주는 효과(상호 예측성)으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 극대화

[주제] 변별적 자질을 통한 음운 간의 대립 설명과 그 의의  
 구체적인 예를 동원해 변별적 자질의 개념과 역할을 설명하고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.

※ 참고 : 2005학년도 수능 <비문학, 언어 - 한글의 문자학적 특성>에서 '자질'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.

30. ②

👉 **오장4 세부 정보의 파악 (정답률 65% ④20%)**

2문단 첫 번째 문장 '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.'와 2문단 마지막 문장 '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(들)로 표시할 수 있다.'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▶ **오답피하기**

- ① 1문단에서 '변별적 자질은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'이라 하였다. ('음성적 특성'은 '변별적 자질'의 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.)
- ③ 하나의 변별적 자질은 안다고 해서 해당 음운의 모든 음성적 특성을 알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.

가령 '/ㅁ/'이 [+양순성]의 변별적 자질을 지닌다는 것은 '양순성'이라는 음성적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, '비음성'이라는 다른 음성적 특성에 대한 것은 [+양순성]이라는 변별적 자질과는 별개의 문제이다.

(찬희가 [+곱슬머리]의 변별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은 '곱슬머리'라는 외양적 특성이 있



음을 의미하는 것이며, ‘빠드렁니’라는 다른 외양적 특성에 대한 것은 [+곱슬머리]이라는 변별적 특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.)

- ④ ‘F’는 음성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‘+/-’는 해당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. 어떤 한 음운은 어떤 음성적 특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음성적 특성이 없을 수는 없다.

(찬희가 ‘곱슬머리’이라는 외양적 특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외양적 특성이 없을 수는 없다.)

많은 학생들이 1문단의 ‘/h/은 [+양순성, -비음성]이라는 변별적 자질들의 묶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.’라는 구절을 근거로 하여 <어떤 한 음운은 [+F]이면서 동시에 [-F]인 변별적 자질을 가질 수 있다.>라는 진술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잘못 판단한다.

문자 ‘F’에는 여러 가지 음성적 특성이 대입될 수 있지만, 동시에 여러 가지 음성적 특성이 대입될 수는 없다. 즉 ‘F’에 양순성을 대입하면 ‘F’는 양순성인 것이지 비음성은 아니게 되고, 비음성을 대입하면 ‘F’는 비음성인 것이지 양순성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.

이것은 수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자식의 기본적인 약속이다. 문자를 사용한 하나의 수식에서 ‘a=3’이고 동시에 ‘a=5’가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과 같다. ‘a=3’이라고 했다면, ‘a’는 ‘3’인 것이지 동시에 ‘3이 아닌 것’이 될 수 없고, ‘a=5’라고 했으면 ‘a’는 ‘5’인 것이지 동시에 ‘5가 아닌 것’이 될 수는 없다.

- ⑤ 3문단 ‘이러한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~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.’

▶ 찬희 Point! ‘대충대충 읽기 습관’ 과 투쟁하라.

수박 겉 핥기 식으로 글을 읽어서는 안 된다. 단순 내용일치로 해결하기 어렵다. 지문 내용을 이해해야만 추론하고 판단해낼 수 있다.

‘변별적 자질’이라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‘어떤 음운의 소리를 다른 음운의 소리와 구별하는 데 필요한, 그 음운의 소리가 지니고 있는 특성’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.

▶ 꼭 익혀라!

음운	
● 음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간이 내는 최소의 말소리 단위</li> <li>• 분절 음운 (자음, 모음)과 비분절 음운(고저, 강약, 장단)으로 나뉜다.</li> </ul>
● 음운의 분류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양순음 : ㅁ, ㅂ, ㅍ, ㅃ (※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며 나는 소리)</li> <li>• 유성음(울림소리) : 모든 모음, 비음(콧소리 ㅇ, ㄴ, ㄹ), 유음(흐름소리, ㄹ) (※ 나머지 자음은 안울림소리)</li> <li>• 구개음 : ㄷ, ㅌ, ㅊ (※ 혀바닥이 입천장에 붙었다 떨어지며 나는 소리)</li> <li>• 원순모음 : ㅜ, ㅠ (※ 둥근 입술 모양으로 소리를 냄. 나머지 모음은 평순모음)</li> </ul>



☞ 2010학년도 수능 30번, 31번 / 2009학년도 9월 시행 모의평가 33번, 35번 / 2009년 6월 시행 모의평가 30번 / 2005학년도 수능 [44~47] / 2000학년도 수능 32번 / 1999학년도 수능 38번 문제를 보라.

31. ⑤

☞ **유형8 적용하기 (정답률 60% ④15% ③10%)**

<보기>에서 '㉠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'은 A에 해당하는 'ㄱ, ㄷ, ㅂ'이고, '㉡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'은 B에 해당하는 'ㅇ, ㄴ, ㄹ' 이고, '㉢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'은 C에 해당하는 'ㄱ, ㄴ, ㄴ'이다. '국물'에서 ㉢에 해당하는 음은 곧 'ㅇ'과 'ㄹ'이다.

<보기>에 따르면 'ㅇ'과 'ㄹ'은 모두 [+비음성]의 자질을 나타내므로 '국물'에서 ㉢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할 수 있다.

즉 비음성이라는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되는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것이다.

▶ **찬희 Point! 적용은 '차분한 대응' 으로 해결하라.**

- A : 규칙 전 음, [-비음성]
- B : 규칙 후 음, [+비음성]
- C : 규칙의 환경 음, [+비음성]
- /ㄱ/ : [+양순성, +비음성]
- /ㅂ/ : [+양순성, -비음성]

최고의 학습 교재는 수능과 평가원모의고사 기출 문제이다. 대한민국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학습 교재는 없다. '평가원 표' 기출 문제들은 언어 학습의 시작이면서 끝이다.



※ 이 자료는 전개년도 수능 기출 ·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서, '마르고 닳도록' (이찬희 쌤)의 일부 내용입니다.

※ [네이버 카페] 찬희와 함께 춤을 <http://cafe.naver.com/hibabykissme>